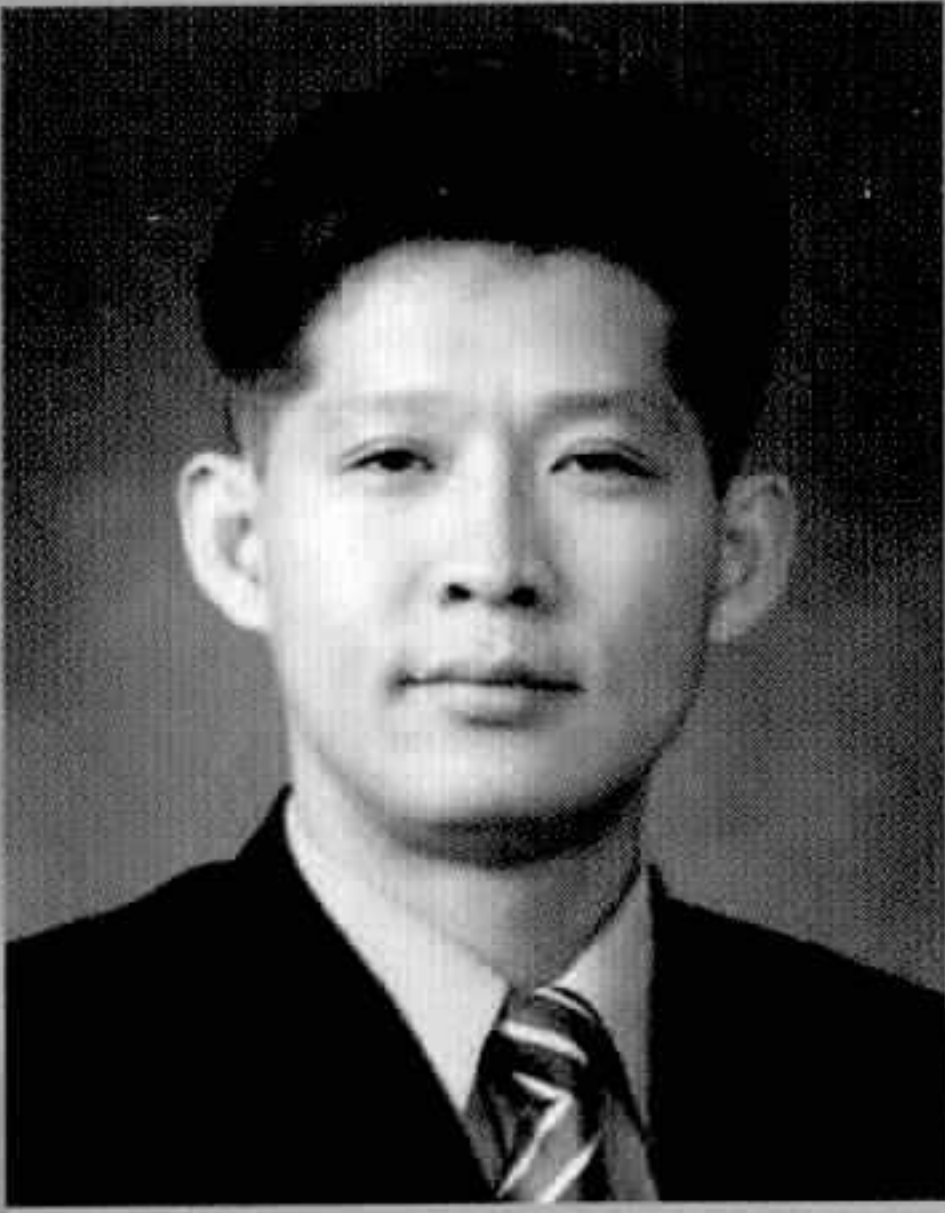


“종오리 Data Base 사업은
오리산업을 발전시킨다.”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타축종에 비하면 국내 오리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비중 역시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국내 축산업계는 농가 경영난 심화에 내수 급속 위축, 해외시장 진출 벽도 높아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최근 사료, 동물약품, 축산자재 등 축산관련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 곡물값 강세와 축산 농가들의 경영난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만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침체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㉞ 오리산업을 어떻게 발전 시키는가?

어느 사업이나 계획이나 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니즈(Needs)의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더구나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리협회에서도 정책건의를 하자면 각종 통계를 근거로 하여야 정책당국자가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건의내용을 올바르게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오리고기의 안정된 가격과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수매가 필요한 경우 수매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방출을 한다면 방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수출입량이 오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서, 종오리의 적정 마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등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리고기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은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현재는 새끼오리생산 잠재력과 산란용사료 공급실적에 의하여 오리고기 수급량을 판단하고 있으니, F1종오리 입식 및 PS 종오리 도태 지연 등으로 수급변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해외의 육종회사와 오리협회, 그리고 종오리수입농가 간에 GPS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㉞ 종오리 개별사육농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종오리 입식도태 현황, 주령별 사육마리수, 산란율, 부화율, 새끼오리 분양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오리 산업의 수요와 공급의 불안 원인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조사항목에 대한 전체농가의 평균치와 최고치, 그리고 최저치를 도표화하고, 이와 함께 개별농가의 조사치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해당농가는 자기의 수

치와 전국평균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영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자기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의 파급은 무등록 부화장을 종오리업 등록으로 유도하여 양성화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오리의 성적표는 현재 추진중인 원종오리(GPS)사업, 그리고 종오리 능력검정사업과 연계되면서 종축관리가 될 것이며, 향후 대한민국 오리 육종사업의 기초자료가 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오리품종 개발에 데이터베이스사업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㉞ 개별의 조사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이때 조사된 개개인의 개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보호된다. 이와 같은 사항은 통계법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통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오리협회에서도 각종 조사되는 기초 자료는 유출하지 않고 2차 가공된 통계 즉 모든 농가를 합산한 합계나 평균이나 도수분포, 표준편차, 증가율, 감소율, 구성비 등만을 공개한다. 개인정보는 절대로 비밀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D/B 관리를 통하여 입식조절, 도태 및 유관업체의 합의사항,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오리 등록제 도입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각종 사업추진이나 협조관계에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사업 실행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자료가 아닌 일반자료는 오리사육농가의 생산 및 경영관리, 생산 자율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공개한다. 공개 방법은 농림부 및 한국 오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월간지, 오리소식지 등 전문잡지나, 전문 신문에 게재, 오리관련 산업 종사업체, 학계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오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